

## 어김없는 '실력 광주'

수능 1·2등급 비율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전영역 1등급 학생 작년 29명 → 올해 45명

### 전남도 작년보다 늘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전남지역 상위권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등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최상위권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수능시험을 치른 2만6322명의 성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1~2등급 등 상위권 득점 비율이 전 영역에 걸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 영역 1등급 학생은 45명으로 지난해 29명보다 16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상위권인 1등급 비율은 언어가 6.3%로 전국 평균보다 1.9%p, 수리가는 6.8%로 2.1%p, 수리나와 외국

어는 9.4%, 7.2%로 각각 3.5%p와 1.9%p 올랐다. 1~2등급 누계 비율은 언어가 18.3%로 평균보다 5.5%p 높았으며 수리 가와 수리 나는 15%와 19.3%로 평균보다 각각 3.6%p와 6.5%p 상승했다. 외국어 영역도 16.2%로 4.4%p가 높아졌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역 성적 5년치 평균(1·2등급)과 비교해도 수리 가 영역을 제외한 언어와 수리나 영역이 0.9%와 1.6%p 올랐으며, 외국어 영역은 평균(16.2%)과 같았다. 수리 가 영역은 15%로 5년 평균 20.1%보다 5.1%p 떨어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돼 상위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중상위권인 1~4등급 영역별 비율도 언어 56.5%, 수리 나 56.6%, 외국어 55% 등 지난해보다 2.6%(수리나)~8.8%(언어) 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지역은 수험생 1만9천344명의 성적 분석 결과, 지난해보다 전 영역에서 1, 2등급이 비율이 상승했다. 전영역 1등급 학생은 16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1~2등급 누계 비율은 언어가 12.6%, 수리 가 11.4%, 외국어 10%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1.8%, 0.5%, 0.5%p 올랐다. 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등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으로 삼는 2개 영역 2등급 이상 수험생은 2천12명(지난해 1천578명)에 달하는 등 상위 학생들의 실력이 부족해졌다.

광주와 전남도 교육청은 대학별 배치표를 만들어 진학 설명회를 갖는 한편 면접시험 등에 대비한 면접·구술 캠프를 운영하는 등 수험생 진학 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랑의 선물 따뜻한 연말 전달된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자원봉사자 30여명이 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적십자 수련원 식당에서 환한 표정으로 '사랑의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선물은 이날 말게 광주·전남 지역 결혼가정과 독거노인 등 350가구에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호남 1조5천억 < 영남 23조4천억

'5+2 광역경제권' 신규사업비 최소 15배 차이

## 한전, 혁신도시 이전 여전히 미적

### 땅값 인하도 요청...연내 본계약 체결 약속 뒤집나

이명박 대통령의 차질없는 혁신도시 조성 약속에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핵심 공공기관인 한전전력이 이전에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한전 이전추진팀 이모 실장 등이 지난 4일 공사를 방문해 김영진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외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을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니 최소한 부지조성비가 10%

를 인하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실장은 "연내 사옥 건립 부지 등에 대한 가계약 내지, 본계약을 체결 하라는 한전 김승수 사장의 지시로 광주도시공사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부지 조성원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 상태로, 한전 만을 위한 가격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을 미루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부지조성 원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재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나중에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기면 추후 정산하는 게 어떨까"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한전측은 지난해에도 혁신도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토지주택공사 등에 사옥 부지를 대폭 축소하고, 부지 조성원가도 크게 낮춰달라고 요구,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2 광역경제권'의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호남권과 영남권(대경권+동남권)의 신규 사업비 격차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도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계획 30대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 34개 가운데 호남권에 배정된 신규 사업은 3개에 불과하며 사업비도 1조5천104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비의 3%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반해 대경권은 11개 신규사업에 15조원의 사업비

가, 동남권은 4개 신규사업에 8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영남권의 신규사업비가 호남권의 15배가 넘어서고 있다"며 "신규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 배정된 이유가 뭐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주와 전남도, 전북도를 한데 묶은 호남권의 신규사

업비가 강원권(3조2천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호남권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대 선도 프로젝트 신규사업 가운데 아직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11조~20

조원 추정)을 포함한다면 호남권과 영남권의 신규사업비 격차는 최대 29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권의 신규 사업은 5개에 13조5천억원, 수도권은 8개 사업 7조9천억원, 제주권은 1개 사업 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4대강 예산 강행 처리...국회 파행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분회의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져 연말 예산국회에서 대치정국이 심

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분회의에서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4대강 예산 일방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 분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국토위

는 이날 낮 3조5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특히 이날 파행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처리와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도 미뤄져 지역 중요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1일께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제58기 수습기자·경력사원 모집  
오늘 접수 마감합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89/081-222-8100